

‘적자 매치’ 중계포기...배구에 밀린 프로야구

방송사들 “5순위는 사실상 적자중계”
26·27일 KT-NC전 TV중계 안하기로
야구 대신 프로배구 챔피언 중계 선택
통신사·포털이 중계...향후 추이 관심

우려는 현실이 됐다. KBO리그의 전 경기 TV중계라는 매우 특별한 지위의 균열이 시작됐다. 프로야구 중계 콘텐츠가 TV에서 모바일 등 인터넷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따른다.

26, 2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는 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시즌 초반이고, 미국과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KT 이대은의 시즌 데뷔전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방송사는 프로배구 V리그 챔피언결정전 중계를 선택했다. 이전에도 배구, 농구 등의 경기를 위해 야구경기가 생중계 되지 않은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채널은 중계영상을 제작해 지연 중계 및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활용했다.

KBO리그의 TV중계권을 갖고 있는 KBS, MBC, SBS 지상파3사 컨소시엄은 전체 리그 경기의 95%를 의무적으로 중계 방송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올해 2019시즌까지다.

지상파 3사 컨소시엄은 TV중계권 판매권을 에이클라에게 위탁했다. 케이블 스포츠채널 스포티비의 모회사이기도 한 에이클라는 다시 이 중계권을 지상파3사의 계열사인 스포츠케이بل 방송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스포츠케이بل 방송사는 중계권료와 제작비를 모두 떠안고 있다. MBC스포츠+, SBS스포츠, KBSN과 스포티브 2개 채널은 번갈아 1~5순위로 중계 경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 중 5순위는 사실상 ‘적자 중계’라는 것이 방송사 입장이다. 중계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들은 올 시즌을 앞두고 중계 카메라 숫자를 줄이는 등 제작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 5순위 경기의 중계방송 포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후 TV중계권은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방송사들이 의무 방송 비율을 낮추는 협상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O리그 전 경기 TV중계’의 균열이 시작됐다. 스포츠케이بل 방송사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경기의 중계 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뉴미디어 중계 권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야구중계 소비 플랫폼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케이블 TV가 중계를 하지 않았던 지난 14일 두산 베어스-LG 트윈스 시범경기 역시 구단이 인터넷으로 자체 중계를 했었다. 스포츠동아 DB

로 전망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26일 “방송사들이 중계영상 제작을 하지 않을 경우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자가 제작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26, 27일 KT-NC전도 이 조항에 따라 뉴미디어 중계권을 가진 통신사·포털 컨소시엄이 중계방송 제작을 하기로 했고 네이버, 카카오,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옥수수 등에서 생중계된다. 야구팬들의 중계방송 소비가 TV에서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디오판독은 시행되지 않는다. 뉴미디어 중계사가 제작하는 영상이 판독 센터로 송신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KBO가 각 구장에서 직접 판독용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스포츠케이بل 방송사가 촬영한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빅마우스

- 훨씬 더 멋있어요. 딱 봐도 다르잖아요, 포스가. (LG 트윈스 유강남. 올 시즌 부활한 검정색 원정 유니폼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 배트 찾기 삼만리예요.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있어요. (SK 와이번스 한동민. 아끼던 배망이가 최근 부러졌다며)
-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 사진 기자들이 덕아웃에 있는 한 감독의 미소 짓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자)
- (양)의지보다는 (김)강물이 생각이 더 너더라.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 ‘양의지 생각은 안 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재활 중인 김강물을 언급하며)

KIA 타선 침묵에도...김기태 감독 “포수만 교체”

26일 한화전, 한승택 대신 김민식
김 감독 “걱정 안해...더 좋아질 것”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 선발 라인업은 LG 트윈스와 맞붙은 시즌 개막전부터 26일 한화 이글스전까지 3경기 동안 거의 변동이 없다.

23일과 24일 LG전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라인업을 내세웠고, 26일 한화전에서는 포수를 한승택에서 김민식으로만 교체했다. KIA 김기태 감독은 시즌 전 “3~5번은 고정적으로 가려 한다. 나머지 타선은 상황에 맞춰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규시즌에 돌입한 뒤에는 고정적인 타순으로 매 경기 임하고 있다.

첫 결과는 좋지 못했다. KIA는 LG를 상대로 두 경기에서 단 3득점하며 모두 무릎을 꿇었다. 득점 찬스에서 타자들 대부분이 침묵했고, 장기인 장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좋지 않은 출발에 변화를 줄만도 하지만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주중 3연전 시작까지 그대로 믿음을 보였다. 26일 한화를 상대로도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라인업을 선택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김기태 감독

말라는 의도다. 두 경기를 했으니 이제 10타석 정도 들어선 셈이다”라며 “욕심이 많은 선수들이다. 본인들도 화가 많이나 있을 테니 이후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안 좋으면 좋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막 2연전에서 안정감을 뽐낸 볼펜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젊은 친구들이 뒤를 안정적으로 지켜줬다”며 흐뭇해했다. 이에 더해 “아직은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체력적인 걱정은 있다. 뒤로 갈수록 어떻게 버텨내는가가 관건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상 자원의 합류에 대해서는 몇몇 선수를 언급했다. “한승택은 4월 말 정도로 복귀를 보고 있다. 박준표도 최근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핵심 볼펜으로 활약한 임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마음이 아프다.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는데... 참 안타깝다”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BE BRAVE

DUNLOP

SRIXON Z 785

내안의 용감함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Ti51AF 컴페이스가 만들어낸 놀라운 비거리!

ALL NEW

SRIXON Z

Z 785 | Z 585